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9호 【루계 제2739호】

주체112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음력 2월 6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뜻깊은 2월명절을 기념하여 진행된 체육경기를 관람하시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기념하여 2월 17일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사이의 체육경기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경기를 관람하시였다.

꿈결에도 뵙고싶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2월의 봄명절에 뜻깊은 체육문화행사를 진행하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된 내각과 국방성 일군들의 환희와 격정으로 경기장은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선수들과 관람자들은 《만세!》의 환호성을 열광적으로 터쳐올리였다.

먼저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간의 축구경기가 진행되였다.

경기는 시종 치렬하였다.

전반전 32분경에 국방성팀의 12번선수가 문전까지 몰고들어가 재치있는 차넣기로 선제꼴을 넣었다.

경기휴식시간에 평양항공구락부 모형항공기선수들이 각이한 모형항공기들의 난도높은 기교비행을 펼쳐놓아 관람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후반전에 들어와 경기시간 55분경 11m벌차기기회를 마련한 내각팀에서 22번선수의 강한 차넣기가 성공하여 1:1로 비긴 가운데 량팀의 공방전은 더욱 가열되였다.

선수들모두가 지칠줄 모르는 강한 승부심으로 경기장을 종횡무진하며 멋진 경기장면들을 펼쳐보이는 속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득점기회들이 마련될 때마다 관람석에서는 기쁨과 아쉬움이 엇갈린 호성이 터져나오고 응원열기는 한층 고조되였다.

경기에서는 국방성팀이 내각팀을 3:1로 이겼다.

축구경기에 이어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사이의 바줄당기기경기가 진행되였다.

바줄당기기경기에서도 국방성팀이 내각팀을 2:0으로 이겼다.

경기가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내각과 국방성의 일군들은 경사로운 2월명절을 맞으며 뜻깊은 체육문화행사를 마련해주시고 몸소 시간을 내시여 자리를 함께 하시며 무한한 힘과 용기와 기쁨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사랑하는 자제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기쁨과 희열에 넘쳐 뜻깊은 2월의 봄명절을 기념한 오늘의 이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며 올해를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길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일본 도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허종만동지 앞

나는 의장동지의 생일 88돐을 맞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 우리 가정의 진정어린 축수를 담아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장동지는 한생을 오로지 조국의 통일과 부흥발전을 위하여, 재일동포들의 존엄높은 삶과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참다운 혁명가, 해외교포운동의 명망높은 활동가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거치른 이역의 광풍속에서도 《동지애의 노래》를 신념과 의리의 송가로 높이 부르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인 총련을 영용하게 수호발전시켜온 의장동지의 특출한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있습니다.

친애하는 허종만의장동지,

나는 의장동지가 주체위업의 영원한 동행자라는 값높은 칭호를 소중히 간직하고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길에 더욱 정진해주기를 바라면서 의장동지의 귀체건강과 온 가정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 정 은

주체 112(2023) 년 2 월 22 일 평 양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재일동포들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

재일동포들이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에 15일 총련중앙일군들, 중앙단체 일군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81돐경축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15일 일본 도꾜에 있는 총련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박구호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 남승우부의장, 배진구부의장 겸 사무총국장, 조일연부의장, 송근학부의장 겸 교육국장, 서충언부의장 겸 국제통일국장, 강추련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리명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 상임위원들, 고문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소장, 총련본부위원장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박구호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애국애민의 의지로 온몸을 깡그리 불태우시며 고귀한 한생의 모든것을 나라일에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로고에 대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신 사랑과 배려에 대하여 다시금 가슴뜨겁게 되새기게 된다고 하면서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인 올해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애족애국운동을 더욱 기운차게 벌려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한편 총련중앙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15일 재일조선학생소년들의 2023년 설맞이공연록화편집물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를 시청하였다.

이보다 앞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81돐경축 총련중앙강연회가 13일 일본 도꾜에 있는 총련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재중동포단체들 경축행사 진행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81돐에 즈음하여 재중동포단체들이 경축행사들을 진행하였다.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동상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심양에 있는 우리 나라 대표부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과 영상작품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재중조선인녀성협회,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길림지구협회 길림시지부, 료녕지구협회 단동시지부,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황백하가족, 길림지구협회 전 부회장 홍영순가족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16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경축보고회가 총련합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였다.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을 비롯한 일군들, 중앙상임위원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일군들,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들, 재중조선인녀성협회 회원들, 산하지구협회 회장들, 지부장들,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 회장을 비롯한 재중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최수봉제1부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동포들은 끝없는 흠모의 한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주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삼가 드리면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동포들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휘몰아쳐와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영원히 믿고 따르려는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고 언명하였다.

이어 광명성절경축 예술공연이 있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산하조직들에서는 조선기록영화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6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혁명적당으로》를 시청하였다.

한편 12일 중국 단동에서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주최로 기념강연회가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공화국의 앞길을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

자주, 자립, 자위의 신념을 안고 광활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공화국의 강용한 기상앞에 질겁한 적대세력들은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반공화국대결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리고있다.

최근에도 미국과 남조선역적패당은 국제적인 반공화국제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열을 올리는 한편 련합공중훈련을 비롯한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련이어 벌리면서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해보려 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공화국의 불가항력과 도도한 전진으로 막다른 궁지에 몰린자들의 단말마적발악이며 허세성객기이다.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그리고 그 어떤 국난도 부흥번영, 부국강병의 길로 용진하는 공화국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돌이켜보면 지난 10여년은 공화국앞에 혹독한 도전과 난관이 겹쌓인 준엄한 년대였다. 특히 지난해는 우리 공화국의 70여년사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가장 엄혹한 해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반공화국압살책동과 련이은 자연재해, 건국이래의 대동란이라고 할수 있는 중대보건위기…

허나 오늘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이 나라 인민의 가슴마다에 넘치는것은 만난시련을 강의하게 눌러딛고 승리와 영광의 단상에 기어이 올라선 쾌감, 자주적인민의 더없는 긍지와 자부이다. 그리고 보다 강해진 자기 힘에 대한 절대적확신, 보다 아름답고 광활한 미래에 대한 만만한 자신심과 가슴뿌듯한 희망이다.

공화국인민이 오늘과 같이 반만년민족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최상의 국위와 국광을 만방에 떨치며 위대한 기적과 변혁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만고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특출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그이께서는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가장 적시적이고도 과학적인 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며 전체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힘차게 이끌어오시였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강국건설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확고부동한 정치로선으로 재천명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로선을 천명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강력히 추동하는 전략적방침을 제시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피눈물의 언덕에 쓰러졌던 인민을 안아일으켜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변침없이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신분, 위험천만한 화선천리길에 주저없이 나서시고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 보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시대를 펼쳐주신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천하제일위인을 모시였기에 공화국인민은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위대한 기적과 변혁으로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올수 있었다.

되새겨볼수록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는 이 나라 인민이다. 얼마나 위대하고 거창한 사변들이 이 땅에 펼쳐졌는가.

최근년간에만도 송신, 송화지구와 풍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과 현대문명이 응축된 희한한 새 거리와 다락식주택구가 솟구치고 인민을 위한 련포의 온실바다와 황남의 농기계열병식과 같은 자력자강의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여 온 나라 인민을 기쁘게 하였다.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새로운 농촌살림집들이 눈부신 전경을 뽐내며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김화군을 비롯한 지방의 군과 도시들이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되였으며 국가의 혜택속에 복받은 아이들과 학생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온 나라에 넘쳐나 만사람의 찬탄과 부러움을 자아내고있다.

지난해 전세계가 악성전염병파동으로 일대 혼란에 처해있는 엄혹한 상황하에서 전민합세, 전민항쟁,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령내에 류입되였던 《COVID-19》를 단 91일만에 박멸해버리는 신화적인 방역대승을 이룩한것도 세계보건사에 특기할 사변이다.

이뿐이 아니다.

미국과 친미호전세력들의 류례없이 극악한 북침전쟁도발광란을 최첨단주체병기들의 련이은 과시, 초강력대응타격으로 걸음걸음 좌절제압하며 제국주의아성을 공포의 불도가니에 몰아넣었으며 정의의 힘으로 불의가 란무하는 낡은 세계정치구도에 일대 파렬구를 내였다.

이 모든것은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투철한 자주적신념과 배짱,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 애국애민의 뜨거운 열과 정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굴함없이 전진해온 공화국인민은 세기의 강자, 초강대국의 인민으로 자라났고 공화국은 사상초유의 국난속에서도 전면적부흥의 길을 더욱 기세차게 열어나가고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2022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시간이였고 분명코 우리는 전진하였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략을 밝혀주시였다.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앞당겨오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며 결심이다.

이러한분이시기에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모르시고 더 큰 행복을 인민에게 안겨주시려고 위민헌신의 려정을 끊임없이 이어가고계신다.

공화국인민들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운명의 태양으로,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사상과 령도를 절대적인 충성과 완벽한 실천으로 받들어나가고있다.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 그이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는 충성스러운 인민.

바로 여기에 공화국이 사상초유의 국난속에서도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공산주의리상향을 향하여 줄기차게 전진하는 비결이 있다.

이 불가항력적인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공화국의 전체 인민은 앞으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향도따라 막아서는 시련과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고 사회주의 새 문명, 새 생활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이 땅우에 무궁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 천하제일락원을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세상에 둘도 없는 말

백두산정신

백두산정신은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받들어모시고 백두의 생눈길을 헤친 투사들의 강인한 신념과 의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돌이켜보면 강도 일제와의 전면전쟁을 선포한 빨찌산의 첫 대오는 불과 100여명, 입은것은 가둑나무물을 들인 광목천으로 지은 군복이였고 손에 든 무장은 일제에게서 빼앗은 보병총이 전부였다. 맞서야 할 적은 아시아의 《맹주》라 일컫는 강적이였다.

혁명이 언제 승리할지 기약할수 없었지만 항일투사들은 날아가던 새들도 순간에 얼구어 돌처럼 떨구어버리는 강추위, 사납게 회오리치며 뼈속까지 에이는 맵짠 칼바람과 눈보라속에서도 주춤을 몰랐고 수십, 수백배에 달하는 적들도 맞받아 물리쳤으며 두눈을 잃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당당히 웨쳤다.

그것은 반만년민족사상 처음으로 높이 모신 절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인민이 잘사는 새세상이 온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있었기때문이다.

백두산정신에서 중핵을 이루는것이 바로 수령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결사옹위하는 정신이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백두산정신은 공화국의 70여년사에 영원한 승리의 정신으로 용용히 이어져왔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야 이긴다고 스스럼없이 이야기한 법동농민처럼 전체 인민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운명의 태양으로, 승리의 기치로 굳게 믿고 그이의 령도를 절대적인 충성으로 받들어 위대한 전승신화를 창조하였다. 준엄한 전후복구건설과 천리마대고조시기에도, 제국주의와의 총포성없는 대결속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라는 최악의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극난한 역경속에서도 공화국인민은 언제나 이 정신으로 만난을 헤치며 승리를 이룩해올수 있었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전인민적대진군속에 백두산정신은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다.

지금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책동은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신다면 반드시 이기고 원수님의 령도만 따르면 공산주의리상향은 머지않아 반드시 현실로 펼쳐지리라는 굳은 신념을 간직하고 부흥번영, 부국강병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기에 공화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

김금화

강국의 지도자

천하제일명장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강철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절세위인이시다.

그 어떤 원쑤도 우리 조국과 인민을 건드릴수 없으며 그 어떤 난관도 우리의 전진을 멈춰세울수 없다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 이 조선은 세상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로 되여야 하며 우리 인민은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여야 한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승리와 기적으로 수놓아가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지금도 공화국인민들은 주체101(2012)년 3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단행하신 판문점시찰을 잊지 못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책동으로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였던 그때 최전연의 최전방인 판문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위험한 때에 여기까지 나오실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씀올리는 부대지휘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동무들이 정세가 제일 첨예한 시기 내가 대낮에 최전방에 나왔다고 걱정하는것같은데 괜찮다고 흔연히 말씀하시였다.

이날 회담장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 어느 구석에서 위험천만한 도발이 일어날지 모를 판문점이지만 주저없이 판문각의 로대에 나서시여 서리발 번뜩이는 안광으로 전방을 세세히 살피시였다. 그러시고는 아마 적들은 저들이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벌리는 시기에 내가 판문점에까지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을것이라고 하시며 호탕한 웃음을 터치시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판문점초병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실 때에도 군인들이 전투근무를 수행하고있기때문에 기념사진을 두차례에 걸쳐 찍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올리는 부대지휘관에게 쩌렁쩌렁하신 음성으로 최고사령관이 나왔는데 어느 놈이 감히 덤벼들겠는가, 최고사령관이 지켜주겠으니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어서 다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였다. 초소를 비운다는것은 판문점초소가 전개된이래 있어본적이 없는 일이였다.

이날의 충격적인 사변을 두고 온 행성이 죽가마끓듯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판문점시찰을 통하여 세계는 그이께서 지니신 무비의 담력과 배짱에 대하여 다시한번 절감하였고 희세의 천출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정의와 사회주의길로 꿋꿋이 나아가는 공화국을 굴복시킬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였다.

세계언론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판문점시찰에 대해 《미국과 남조선의 정계나 군부에서는 **김정은**최고사령관의 판문점시찰이 너무도 예상할수 없었던 그야말로 〈허를 찌르는 상상밖의 행보〉라고 하고있다.》, 《청청하늘에서 섬광이 일고 천둥소리를 듣는것같아 깜짝 놀랐다.》, 《백악관과 청와대가 공중분해되는것을 보는것같았다.》고 평한것은 이를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에게 우리는 적들이 단도를 빼들면 장검을 내들고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는 우리의 신념과 배짱은 변함이 없다는것을 전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도 그이께서 지니신 담력과 배짱이 어떤것인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실례이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철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이어가신 혁명령도의 자욱마다에 세인을 놀래우는 감동적인 화폭들이 얼마나 수많이 새겨졌던가.

남들 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극난속에서도 인민사랑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있는 자랑찬 현실,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의 빛나는 실현, 세계최강의 주체무기들의 련이은 탄생, 국가핵무력정책의 공식법화라는 정치적사변 등 승리에서 더 큰 승리, 비약에서 더 큰 비약을 이룩해나가는 공화국의 발전행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투철한 자주적신념과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언제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김정은**동지의 정신과 기질은 백두산의 정기와 기상그대로이라고, 그의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은 정말 놀랄 정도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떼지어 달려드는 천만대적도 발아래로 굽어보시고 막아서는 험산준령도 웃으며 헤쳐가시는 천하제일명장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공화국의 국위와 국광은 후세토록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2월의 대지에 울려퍼진 인민사랑의 봄우뢰

지난 15일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 참석하시여 몸소 착공을 알리는 발파단추를 누르시고 강동온실농장건설착공을 기념하여 친히 착공의 첫삽을 뜨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모습은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려정우에 길이 새겨질 또 하나의 불멸의 화폭이였다.

이날 착공식장들을 뒤흔든 장쾌한 발파뢰성들과 축포성들은 이 땅우에 또다시 일어날 자랑찬 변혁상을 예고하며 2월의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그것은 어버이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이 빛나는 현실로 꽃펴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과 격찬의 메아리였고 세인의 심장을 울리는 인민사랑의 봄우뢰였다.

자신의 천만고생으로 인민의 만복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력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흐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받드시는 어버이, 인민을 위한 길에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사회주의리상실현의 위대한 개척자, 창조자가 되시여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시기 위해 불철주야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신다.

지금도 지난해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연설의 구절구절이 귀전에 울려온다.

우리 당과 정부가 승인한 수도건설전망계획에 따라 태양의 성지가까이에 위치하고 9.9절거리와 잇닿아있는 화성지구에는 앞으로 3년안팎에 수만세대의 살림집과 공공건물, 봉사시설들이 들어앉은 웅장한 거리들이 일떠서고 새 주민행정구역이 생겨나게 된다고, 이 방대한 공사를 포함하여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목표가 성과적으로 달성되면 우리 당은 인민들과 한 제일 중요한 약속을 지키게 되며 우리 수도시민들의 살림집문제가 철저히 해결되게 될것이라고, 지금이 그 어느때보다 조건과 환경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당과 정부가 해마다 수도에 살림집을 1만세대씩 건설하는 사업을 완강히 내미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때로부터 10여일이 흐른 3월 2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새 거리가 일떠설 화성지구에서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식수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몸소 무거운 나무를 드시고 앞장에서 나르시였고 나무를 심어야 할 장소에 이르시여서는 첫삽을 힘있게 땅에 박으시였다.

친히 나무뿌리에 엉킨 새끼줄을 손으로 당겨 푸시고 한줄기 바람이라도 스며들세라 흙도 꽁꽁 다져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날 대회참가자들과 나무를 심으시며 튼튼히 뿌리박은 나무가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듯이 인민이라는 대지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인민에게 의거하는 당은 필승불패이라고, 우리 당을 근로인민대중속에 억척의 뿌리를 둔 전투력이 강하고 단결된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 초급당비서들이 더 노력하고 분발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머지않아 인민들이 살게 될 희한한 새 거리의 아름다움을 더해주시기 위해, 초급당비서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에 애국의 열정과 당적량심을 깡그리 바쳐나가도록 하시기 위해 그처럼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정녕 그날의 뜻깊은 기념식수는 이 땅에 충성과 애국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린 또 하나의 화성지구충격이였다.

세상에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령도자가 있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처럼 위민헌신의 려정을 이어가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는 없다.

인민의 꿈과 리상이 담긴 새로운 목표들을 련이어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는 인민의 령도자, 인민의 운명과 생활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과 헌신적복무정신으로 최중대결단도 주저없이 내리시고 그 어떤 방대한 과업도 기어이 실천해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세번째 해에 수도건설을 보다 통이 크게 벌려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건설과 함께 새로운 3 700세대 거리를 하나 더 형성하며 2022년에 축적된 경험에 토대하여 농촌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신것 아니랴.

그리고 인민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지니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완공된 련포온실농장을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건설할 온실농장은 련포온실농장보다 지능화, 집약화수준이 더 높은, 한세대 더 발전된 온실농장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평양시에 새로 일떠세울 온실농장건설과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신것이다.

강동온실농장을 맛좋고 영양가높은 잎남새, 열매남새, 기능성남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는 실리가 큰 농장으로,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로동환경과 생활환경을 보다 훌륭히 갖춘 리상적인 농장으로 잘 꾸려 인민들의 식생활개선과 새시대 농촌진흥을 추동하는 거대한 동력이 되게 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은 과학이고 진리이며 승리이다. 이것은 당의 웅대한 구상이 눈앞의 현실로, 빛나는 실체로 련속 펼쳐진 지난 10여년의 력사가 똑똑히 보여준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당이 결심하고 구상한 송신, 송화지구며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가 인민의 리상거리, 사회주의번화가로 보란듯이 일떠서고 동해기슭에는 련포온실농장이 건설되였다. 또한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거창한 진군과 더불어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이 전국도처에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랐다.

이 모든것은 이 땅우에 하루빨리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 완강한 실천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령도자가 벽을 울리면 강산을 울리고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하는것이 공화국인민의 모습이며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이다.

올해에 화성지구에 련속적으로 전개되는 건설대전과 시대의 문명이 응축된 새 《농장도시》의 눈부신 모습을 펼치게 될 강동온실농장건설은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막아서는 시련과 도전을 과감히 딛고 자기 힘, 자기 손으로 사회주의 새 문명, 새 생활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공화국인민의 불가항력적기상을 자랑찬 변혁적실체로 다시금 뚜렷이 실증하게 될것이다.

송정혁

애국운동, 대중운동의 위력을 떨치며

건국사상총동원운동

해방직후 새 민주조선건설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건국위업에 이바지하려는 인민들의 정치적열의는 비상히 높아졌다.

그러나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여전히 봉건시대와 일제식민지통치가 남겨놓은 낡은 사상잔재와 생활관습이 많이 남아있었다.

이로부터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사상, 기술, 문화적락후성과 경제적락후성을 극복하고 새 조국건설의 거창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근로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을 개변하고 그들의 창조력을 발동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벌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건국위업수행의 기본열쇠를 사람들의 사상개조에서 찾으시고 주체35(1946)년 11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3차 확대위원회에서 사상의식분야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발기하시였다.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은 일제가 남겨놓은 모든 타락적이며 퇴폐적인 유습과 생활태도를 없애고 새 민주조선의 일군다운 정신과 풍모 등을 전면적으로 키우며 생기발랄하고 약동하는 민족적기풍을 창조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일대 사상개조운동이였다.

건국사상총동원운동에서의 사상투쟁의 기본대상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일제 및 봉건적사상잔재와 악습들인 노예적굴종사상, 사대주의사상, 민족허무주의사상, 관료주의, 리기주의, 타락적이고 퇴폐적이며 향락주의적인 생활습성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은 사상투쟁과 사상교양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상투쟁의 대상과 사상교양의 기본내용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이 운동에서 사상교양의 기본내용은 인민대중이 자체의 힘으로 난관을 이겨내고 주인다운 립장에서 새 나라를 건설해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도록 하며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전체의 리익을 소중히 여기고 국가와 사회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고상한 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며 모두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인민적도덕을 가지도록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적극 추진시키기 위한 방도로서 이 운동을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하며 새 조국건설을 위한 인민대중의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은 국가경제기관, 사법안전기관, 사회단체들과 공장, 기업소, 가두를 비롯하여 전국적범위에서 광범하게 벌어졌다.

이 과정에 사람들속에 남아있던 개인리기주의와 향락주의, 게으르고 부화방탕한 현상, 관료주의와 무책임성이 신랄하게 검토비판되고 새 조국건설을 반대하는 적대분자, 이색분자들이 적발제거되였으며 일군들의 책임성이 더욱 높아지고 사업태도와 작풍이 개선되였다. 또한 인민대중의 건국의식과 정치적각성, 애국적열의와 적극성이 비상히 높아졌다.

또한 이 운동이 새 민주조선건설을 위한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는 과정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애국적증산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올랐다.

해방직후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데서 일대전변을 가져온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은 그후 공화국에서 힘있게 벌어진 사상혁명의 시초로 되였다.

신 기 복

수필

다시 찾은 얼굴

평양화력발전소 로동자인 내가 덕과 정이 차넘치는 우리 사회의 미풍에 대하여 그리고 로동자의 존엄과 긍지에 대하여 더욱 심장깊이 절감한 계기가 있었다.

몇달전 뜻밖의 일로 얼굴에 심한 화상을 당한 나는 의식을 잃은채 보건성 치과종합병원에 실려왔었다.

그런 내가 이곳 미용외과 의료일군들의 지극한 정성에 의해 본래의 얼굴모습을 되찾았다.

며칠전 퇴원을 앞두고 나는 거울앞에 섰다. 거울에 비쳐진 얼굴을 보느라니 저도 모르게 눈굽이 뜨거워졌다. 그 순간 눈앞에 지나간 일들이 떠올랐다.

…

《내 피를 뽑아주십시오.》

《나는 O형입니다. 어서 내 피를…》

《환자에게 피부가 요구된다는데 어서 이식해주십시오.》

…

어떻게 알았는지 뜻밖에 화상을 당하고 병원에 실려들어온 나를 위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피와 살을 바치겠다고 달려왔다.

《이젠 됐소, 성공이요.》

《과장선생님, 끝내 우리가 해냈습니다.》

안해도, 다섯살 난 아들애도, 지어 부모들도 알아볼수 없었던 나의 얼굴을 회복시키기 위해 무려 열일곱차례에 걸치는 긴장한 수술을 진행하여 끝끝내 나의 모습을 되찾아준 과장선생님과 의사선생님들도 내가 화상을 입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였다.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찌 그들뿐이였는가.

얼굴과 온몸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워있는 내가 맥을 놓을세라, 절망감에 사로잡힐세라 신심을 주고 고무를 주며 진귀한 약재와 식료품들을 들고 찾아왔던 사람들속에는 한공장에 있지만 직장이 서로 달라 모르고 지낸 사람도, 아빠트에 갓 이사와 아직 눈인사조차 변변히 나누지 못했던 사람도, 지어 안해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달동안을 이렇듯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왔다.

TV나 방송에서, 신문에서 늘 보고 듣던 그런 일이 다름아닌 나에게도 부닥칠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내가 뭐라고, 별로 해놓은 일도 없는 평범한 로동자인 내가 뭐라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사랑과 정을 다 기울여줍니까.》

목메여 흐느끼는 나에게 《모두가 친혈육인 우리 사회가 아니요, 더우기 동무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떠받들리우는 로동자가 아니요.》라고 말하던 과장선생님의 말이 지금도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로동자.

몇십번을 곱씹어 불러보고 또 불러본 부름이다.

극도의 개인주의가 만연되여있는 썩고 병든 남조선사회에서라면 한갖 《말하는 로동도구》에 불과한 로동자, 로동재해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동료의 주검앞에서 자기의 래일을 그려보아야만 하는 불쌍한 로동자, 앞날에 대한 비관과 절망에 빠져 삶을 포기해야 하는 로동자가 아닌가.

하지만 이 땅에서는 로동자라는 부름이 가장 긍지높이 불리우고있다.

로동자, 그 부름과 더불어 얼마나 크나큰 행복이 나와 같은 로동자들에게 꿈같이 찾아왔는가.

만사람의 감동과 부러움속에 수도의 중심부 구슬다락에 돈 한푼 들이지 않고 행복의 보금자리를 편 사람들속에도, 나라의 정사를 의논하는 대의원들속에도, 뜻깊은 경축행사에 참가하여 위대한 어버이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대표들속에도 우리 로동자들이 있다. 그리고 나와 같은 평범한 로동자를 위해 친혈육도 아닌 사람들이 자기의 피와 살을 아낌없이 바쳤다.

나는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거울에 비낀 나의 모습, 앞날에 대한 환희와 락관에 넘쳐있는 나의 모습.

그것은 근로하는 인민을 제일로 내세우는 사회주의 우리 제도, 덕과 정으로 모두가 한식솔을 이룬 고마운 사회주의 우리 집의 자화상이였다.

리 근 우

함께 울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대가정

특류영예군인의 어머니가 되여

공화국에서는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뜨거운 인정미로 서로 위해주는 미덕과 미풍이 국풍으로 되고있다.

얼마전 오래동안 걷지 못하던 특류영예군인을 일으켜세워주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지극한 정성을 기울여온 신의주시 신선동의 한옥희녀성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몇해전 신의주시의 역전광장을 찾았던 한옥희녀성은 앞가슴에 영예군인메달을 단 30대청년인 리명성을 알게 되였다. 그날 오랜 시간에 걸쳐 리명성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군사복무를 하다가 부상당하게 된 경위와 병명은 물론 그의 취미와 식성까지 일일이 알게 된 한옥희녀성의 가슴속에는 어떻게 하면 그가 대지를 제발로 걷게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굳게 자리잡았다.

물론 전문병원에서도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의 병치료를 도와나선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것인지, 또 그것이 몇해가 걸릴지 기약할수 없다는것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조국을 위해 피흘린 영예군인들을 위해서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숭고한 자각이 한옥희녀성으로 하여금 쉽지 않은 용단을 내리게 하였다.

그후 한옥희녀성에게는 하나의 일과가 생겨났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이면 리명성을 찾아가 안마를 해주는것이였다.

처음 해보는 일이여서 손가락에 강직이 오고 땀으로 온몸이 젖어들었지만 어느 하루도 중단하지 않았다.

그 나날 한옥희녀성은 리명성을 위해 유능한 의사들을 데리고 와 새로운 치료방법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매일 의학대학에 찾아가 의학공부를 하고 밤에는 밤대로 치료방법을 연구하였다.

언제부터인가 한옥희녀성의 집에는 토끼우리와 닭우리가 생겨났다. 병치료를 하느라 쇠약해진 리명성의 몸보신을 위해 그가 키운 검정토끼와 검정닭만 해도 수십마리나 된다.

이렇게 남모르게 바친 진정이 마침내 돌우에도 꽃을 피웠는가 치료를 시작한지 꼭 다섯달만에 기적이 일어났다.

리명성이 처음으로 발바닥의 아픔을 호소했던것이다.

《앗, 따가와!》라는 환자의 소리를 듣고 부모도 안해도 깜짝 놀랐다.

이윽하여 《어머니!—》라는 목메인 부름과 함께 리명성은 한옥희녀성의 품에 와락 안겼다. 한옥희녀성도 난생처음 들어보는 부름인듯 눈시울을 적시였다.

그로부터 한해후 리명성의 가정에는 귀여운 딸애가 태여났다. 또 몇해후에 그는 쌍지팽이에 의지하여 제발로 걷게 되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대학공부를 하고싶어하는 리명성의 마음속소원을 읽고 한옥희녀성은 신의주영예군인경제대학과 련계하여 필요한 수속을 하였다.

그가 대학에 입학하던 날 한옥희녀성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이였다. 그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을 뜨겁게 간직한 어머니들만이 흘릴수 있는 행복의 눈물이였다.

흔히 자식 하나를 키우는데 오만공수의 품이 든다고 한다. 하물며 친자식도 아니고 몸조차 성하지 못한 특류영예군인의 학습과 생활을 위하여 바쳐온 한옥희녀성의 수고를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이러한 지성속에 리명성은 **김일성**장학금수상자로 자라났고 대학과정안을 성과적으로 마치였다.

대학을 졸업하던 날 리명성은 한옥희녀성과 함께 신의주역전광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았다. 리명성은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며 이렇게 삼가 아뢰였다.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장군님, 자본주의나라 같으면 길가의 막돌처럼 버림받았을 제가 오늘은 생의 활력을 되찾고 대학졸업생이 되였습니다. 한없이 고마운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겠습니다!)

본사기자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민족의 사랑 《평양랭면풍습》

인상적인 놋그릇은
고색짙은 평양성이런가
출렁이는 육수는
대동강물처럼 맑고
물속에 솟은 사리는
류경이런듯
쌓아올린 꾸미마저도
무지개마냥 아름다워라

시원하면서도 산뜻한 입맛, 독특한 향취로 하여 조선민족음식의 대표작으로 널리 알려진 평양랭면!

소문난 평양랭면의 비결이 무엇인지, 세월을 넘어 《평양랭면풍습》이 어떻게 면면히 이어져왔는지… 인류의 대표적인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평양랭면풍습》에 대해 전하고저 우리는 해당 부문의 전문가들을 만났다.

메밀국수와 깊이 얽혀져있는 우리 민족

실머리를 찾아야 바늘에 실을 꿸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평양랭면풍습》취재를 위해 우리는 먼저 민족음식생활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를 찾아 공명성소장을 만났다.

▶ 대대로 전해져오는 《평양랭면풍습》에는 어떤것들이 포함되여있는지, 어떻게 되여 평양랭면이 조선사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으로 되였는지 그에 대해 들려주었으면 한다.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여온 〈평양랭면풍습〉에는 평양랭면을 만드는것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 그리고 평양랭면을 만드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사회적관습 등이 속합니다.》

공명성소장은 예로부터 메밀국수와 우리 민족은 깊이 얽혀져있다며 그 유래에 대해 들려주었다.

고려시기 평양의 찬샘골마을에 달세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 달세는 의암마을(현재 대동강구역 의암동)에 사는 백살장수자로인에게서 메밀수제비국이 건강에 아주 좋다는 말을 듣고 메밀칼제비장국을 잘 만들어 인기를 끌었다.

어느날 한 수공업자가 작은 구멍투성이의 쇠판을 댄 참나무분통을 가지고 와 달세와 함께 연장손잡이를 눌러 나오는 메밀반죽오래기들을 끓는 물에 삶아 찬물에 헹군 다음 동치미국물에 말아먹었는데 그 맛이 이를데 없어 이 희한한 음식을 《곡식 곡》자에 《물 수》자를 붙여 《곡수》(후에는 《국수》)라고 불렀다는것이였다.

신비한 박우물의 효험까지 담은 《찬 곡수》에 대한 소문은 삽시에 평양지경을 벗어나 각지로 퍼져가 《평양랭면》이라는 특유의 음식으로 유명해졌는데 그로 하여 이 이름난 음식을 낳은 찬샘골마을을 랭천동이라고 불러왔다.

《옛 력사기록들인 〈동국세시기〉와 〈해동죽지〉에 〈메밀국수를 무우김치와 배추김치에 말고 돼지고기를 넣은것을 랭면이라고 하는데 관서지방(평안도)의 국수가 제일 좋다.〉, 〈평양랭면이 제일이다.〉고 씌여져있는가 하면 이웃나라 사람들도 〈메밀국수는 천하에 좋은 음식인데 이것은 동쪽(조선을 이르는 말.)에서 온것이다.〉, 〈고려의 특색있는 10여가지 음식가운데서 국수맛을 으뜸으로 삼았다.〉고 쓴 기록을 놓고보아도 고려시기에 평양랭면이 식생활에 널리 리용되여왔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텁텁하고 호방하며 활달하고 랑만적인 평양사람들의 성품과 기호가 낳은 평양랭면은 그후에도 널리 파급되여 평안도지방에서는 집집마다 국수분틀을 차려놓고 메밀국수를 눌러먹는 관습도 생겨났다. 이웃이나 친지들과 함께 메밀국수를 맛있게 들고 민속놀이도 하며 즐기는 모습은 평양랭면이 낳은 류다른 문화적풍경으로 되여왔는데 료리방법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오늘날에도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메밀국수를 눌러먹는 가정들이 많다고 한다.

하다면 어째서 강냉이나 밀보다도 메밀로 국수를 눌러먹었을가?

그 의문은 우리 선조들이 메밀이 건강에 좋다는것을 알았기때문이라고, 메밀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기름질, 광물질, 비타민과 함께 루틴이 많이 들어있어 고혈압과 뇌혈전을 예방하고 비만을 치료하는데 좋다고, 이렇듯 음식감 하나를 선택해도 과학적원리를 구현한것으로 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이 조선민족음식을 두고 《만민의 념원을 푸는 약식료리》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비로소 풀리게 되였다.

평양랭면의 원료인 메밀을 여러 지방에서 심고있지만 평안남도 증산군에서 나는 메밀의 품질이 특별히 손꼽히는데 메밀고장인 증산군에 장수자가 많은것도 아마 그런 리유에서일것이다.

옥류관주방의 《마술사》들

평양랭면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것은 풍치수려한 평양의 대동강기슭 옥류벽우에 두둥실 솟아있는 옥류관이다.

옥류관에서 평양랭면을 맛본 외국인들은 《최고의 맛을 가진 평양랭면! 그것은 인류의 위대한 발견이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 어떤 마술에 걸렸던것같은 느낌이다. 필경 옥류관주방에서 〈마술사〉들이 조화를 부리는것같다.》며 흥분을 금치 못한 해외동포들도 있었다.

《마술사》들이 일하는 옥류관에 가면 노래 《평양랭면 제일이야》를 기막히게 잘 불러 명가수로 소문난 리철만직장장이 있다. 그가 이 노래와 인연을 맺은것은 옥류관 료리사로 배치된지 얼마 안되여 TV예술영화 《옥류풍경》촬영에 동원되였을 때였다고 한다. 원래 다정다감한 성격인데다가 한때 재담수로 이름을 날린적이 있는 그는 옥류관 료리사역형상을 나무랄데 없이 수행하였다. 그 나날 영화의 주제가 《평양랭면 제일이야》는 그의 가슴속에 정다운 일터 옥류관의 모습으로 깊이 새겨졌다. 그때부터 이 노래는 그가 제일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노래로 되였다.

랭면 랭면 평양랭면 천하
제일 진미로세
젊은이도 늙은이도 먼저
찾는 랭면일세
…

건드러진 목소리로 그가 흥취나게 이 노래를 부를때면 누구나 좋아하였고 거듭 재청을 요구하였다. 한편의 노래로 옥류관 료리사가 명가수로 유명해졌다. 아니, 가슴속에 끓어넘치는 평양랭면에 대한 사랑이 명가수를 낳았다고 해야 옳을것이다.

옥류관 료리사라면 마땅히 평양랭면을 만드는데서 명수가 되여야 한다는것이 리철만직장장의 견해이다.

그는 말한다. 평양랭면의 독특한 맛과 향취는 옥류관의 터가 좋고 물이 좋으며 료리비방이 신비로운데 있다고.

《평양랭면은 원료와 육수, 꾸미와 고명, 그릇과 국수말기 등이 매우 독특합니다. 원료는 순 메밀을 쓰는데 메밀국수오리는 지나치게 질기지 않고 먹기에 맞춤한데다가 메밀의 고유한 맛은 입맛을 돋구어줍니다. 평양랭면은 동치미물이나 육수에 말기때문에 맛이 시원하고 달며 새큼하므로 뒤맛을 감치게 합니다.》

그에 의하면 평양랭면을 말 때 시원한감을 주는 놋대접에 육수를 조금 붓고 국수를 사려서 수북이 담은 그우에 김치와 고기, 닭알, 배, 오이 등의 순서로 꾸미와 고명을 얹고 마지막에 육수를 붓는 방법으로 완성한다. 그리고 여러가지 양념을 쓰지 않고 간장이나 식초를 가지고 국수의 맛을 낸다는것이다.

이렇게 말아낸 평양랭면은 맛과 향취가 뛰여날뿐 아니라 겉보기와 차림새에서 특색있어 하나의 예술작품을 방불케 한다는것이다.

그 어떤 고급료리사도 옥류관국수맛을 흉내낼수 없다고 하는것은 민족의 자랑인 평양랭면을 온 세상에 떨치기 위해 바쳐가는 이들의 노력과 열정을 누구도 따를수 없기때문이 아니겠는가.

평양랭면의 고유한 특색을 살려

평양랭면을 전문으로 하는 봉사단위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보람이 차넘칠수록 세상사람들이 엄지손가락을 내흔드는 평양랭면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기 위해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로고와 헌신이 어려와 눈굽을 적시는 옥류관의 일군들과 료리사들이다.

전후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평양의 명당자리에 평양랭면을 전문으로 봉사하는 옥류관을 조선식기와집으로, 멋쟁이건물로 지어주시여 명실공히 민족료리의 《원종장》으로 되도록 해주시였다고 하면서 문경호 옥류관 경리는 이렇게 말하였다.

《옥류관과 평양랭면, 이제는 꼭같은 의미로 느껴질만큼 너무도 친숙해진 부름이지만 그 부름속에 실려있는 위대한 어버이의 웅심깊은 사랑의 세계를 사람들은 다는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한때 늘어나는 대중적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면서 메밀가루에 농마가루를 섞어 봉사한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렇게 만드는것은 함경도식도 아니고 평양식도 아닌 범벅국수라고 하시면서 평양랭면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자면 순메밀로 국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범벅국수로 되는것을 내버려두면 고유한 우리 민족음식의 전통이 없어질수 있다고 하시며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련의 나날에도 평양랭면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원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정히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옥류관국수의 맛도 보아주시며 육수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와 구수한 메밀냄새가 풍기게 하자면 반죽을 어떻게 해야 하며 국수사리를 씻을 때 물의 온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평양랭면의 조리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의것을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신 다심한 그 손길이 있어 오늘도 평양랭면은 자기의 고유한 맛을 변함없이 살리며 누구나 먼저 찾는 민족음식으로 호평을 받고있다는것이였다.

어딜 가나 우리의 멋이 살아숨쉬고 민족의 향취가 넘쳐흐르는 오늘의 시대에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평양랭면풍습》!

민족문화유산에는 력사가 살아숨쉰다고 했다.

민족의 슬기와 넋이 깃든 《평양랭면풍습》에 대한 취재를 마치면서 우리는 다시금 새겨안았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그 력사속에 평양랭면은 천하제일진미로 온 세상에 그 향기를 풍길것이라고, 《평양랭면풍습》은 앞으로도 조선민족의 자랑으로, 인류공동의 문화적재보로 더욱 빛을 뿌릴것이라고.

본사기자 홍 범 식

총련을 사회주의조국의 한 부분으로 여기시며

총련을 애족애국의 선각자, 애국충성의 모범,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조직으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실록에는 총련을 사회주의조국의 한 부분으로 여기시며 총련일군들에게 친어버이의 따뜻한 사랑과 정을 베풀어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간절해지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뜻깊은 2월과 더불어 영원할 그이의 불멸의 혁명실록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주체91(2002)년 2월 27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단장으로 조국을 방문하고있는 총련의 한 책임일군을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자나깨나 뵙고싶던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고 격정을 누르지 못하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열화같은 마음을 담아 건강축원의 인사를 삼가 올리는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반갑다고 하시며 총련일군들의 안부부터 물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총련일군들이 격변하는 세계정치정세추이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점과 사고방식, 새로운 방법과 일본새를 확립할데 대한 문제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또한 일신상의 문제로 얼굴빛이 밝지 못한 그 일군의 마음속고충도 헤아려보시고 동무에 대한 우리 당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시며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을 순간에 녹여주시였다.

이날 총련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즉석에서 다 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한 총련의 여러 대표단성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못견디게 그리워한다는 일군의 보고를 받으시고 자신께서 이번에는 총련일군들을 다 만나주시겠다고 뜨거운 정을 담아 교시하시였다.

뜻깊은 탄생일도 현지지도의 길에서 맞으신 그이께서 귀중한 하루를 바치시여 자기를 만나주신것만도 분에 넘치는데 조국을 방문한 총련일군 모두를 위하여 또 하루를 흔연히 내여주시겠다고 하시니 그 일군의 가슴에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이 가슴가득 고여올랐다.

다음날인 2월 28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함흥대극장에서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조국을 방문한 재일조선인예술단의 경축공연 《애국의 꽃》을 친히 보아주시고 총련의 여러 대표단성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뜻깊은 연회도 마련해주시였다.

꿈결에도 그립던 위대한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신 한없는 격정으로 목청껏 환호를 올리는 그들에게 답례를 보내신 그이께서는 오늘 이렇게 총련일군들과 만나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총련일군들을 한전호속의 혁명전우로, 한식솔로 품에 안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총련의 모든 일군들과 동포들은 총련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야 한다고, 일심단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총련 현본부위원장들과 함께 《동지애의 노래》도 함께 부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총련애국사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기를 바란다는 크나큰 기대를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지애의 력사를 줄기차게 이어갈 맹세를 다지는 총련일군들에게 전세대들의 애국의 뜻과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나가야 하며 총련의 귀중한 유산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고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또한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출연하는 대합창공연을 찍은 DVD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일본 도꾜의 한복판에서 1 000명의 학생들이 대합창을 한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총련의 미래를 위하여 축배를 들자고 하시였다.

참으로 2월의 그 이틀간은 위대한 장군님과 총련일군들이 혈연의 뉴대로 혼연일체가 된 뜻깊은 나날이였으며 그이께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마음속에 운명의 태양으로, 자애로운 어버이로 더욱 깊이 새겨지신 나날이였다.

하기에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지금도 주체적재일조선인운동의 자랑찬 승리적로정과 더불어 빛나는 총련의 존엄과 권위는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언제나 총련과 함께 계시며 령도자로서, 어버이로서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수 없다고 목메여 말하고있는것이다.

오늘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위한 애족애국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총련을 사회주의조국의 한 부분으로 여기시며 재일동포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다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운명의 수호자이시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그 믿음과 사랑이 있어 총련은 세계해외교포조직의 본보기로 자랑떨칠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을 친어버이로 모시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어머니조국의 사랑의 력사는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영원할것이다.

본사기자 전 영 민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여

교인들도 자기 조국이 있어야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을수 있다

주체35(1946)년 10월 25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뜻밖의 사실을 보고받으시였다.

일부 교인들이 11월 3일에 진행되는 첫 민주선거에 참가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괴이한 소식이였다.

그 시기 우리 나라의 교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민주주의기발아래 새 조국건설에 적극 떨쳐나서고있었다.

더우기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땅까지 분여받은 하층교인들은 《하느님도 주지 못한 땅을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시였다.》고 하면서 첫 민주선거에 발벗고나서고있었다.

이에 질겁한 반동들은 일부 동요하는 상층교인들을 꾀여 인민정권을 반대하도록 추동하는 한편 교회에 잠입한 반동들을 내세워 교인들이 선거에 참가하지 말라는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5개조》라는것을 만들어 교회계통에 내려보내였다. 종교계의 상층인물들은 이에 동조하면서 교인들이 선거에 참가하지 말라는 결정을 채택하여 아래단위들에 내려보내였다.

만약 이것을 그대로 방임해둔다면 많은 교인들이 선거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었다.

사태의 엄중성을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그리스도교의 유력한 목사들을 친히 만나시였다.

먼저 그들의 안부부터 물어주시고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정하게 웃으며 물으시였다.

《교인들에게 선거에 참가하지 말라는 결정을 채택하여 내려보낸것이 사실입니까?》

그들은 얼굴을 붉히며 한동안 갑자르다가 말씀드리였다.

《선거는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선거날자가 〈안식일〉이 되여 그렇게 결정하여 내려보냈습니다.》

《안식일》이란 그리스도교에서 편안히 쉬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한주일의 마지막날 즉 일요일을 념두에 둔것이였다.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성경책에는 좋은 일은 《안식일》에도 할수 있다고 씌여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민주선거가 좋은 일이라는것을 인정한다면 인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선거에 교인들을 참가하지 못하게 할 근거가 없지 않는가, 그리고 교인들이 민주선거에 참가한다고 하여 그것이 그리스도교를 배반하는 행동으로는 될수 없지 않은가고 하시였다.

그만 말문이 막힌 목사들은 머리를 수그린채 아무 대답도 드리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는 그들에게 재차 물으시였다.

《교회에서 〈안식일〉에 목사, 장로들을 선거하는 일이 없습니까?》

《〈안식일〉에 교직자들을 선거합니다.》

…그렇다면 11월 3일이 일요일이지만 이날에 교인들이 우리 인민정권의 진정한 대표를 뽑는 선거에 참가하는것이 어떻게 종교를 배반하는 행위로 되겠습니까.

듣고보니 그 말씀이 너무도 사리정연한지라 목사들은 이번에도 입을 다문채 진땀만 흘렸다.

그러는 그들을 미소를 지으시고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첫 민주선거가 가지는 의의와 인민정권기관의 사명과 역할에 대하여 해설해주시고나서 교인들도 다 선거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교인들도 자기 조국이 있어야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을수 있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을것이 아닌가고 따뜻이 일깨워주시였다.

그제서야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은 교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두손을 맞잡고 위대한 수령님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였다.

《장군님, 저희들이 그만 나쁜 놈들의 꾀임에 넘어가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당장 전국의 교인들에게 령을 내리겠습니다.》

이리하여 해방후 첫 민주선거에는 각계각층 군중들과 함께 전국의 교인들도 참가하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 영 진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민족을 위한 길에 삶을 바친 목사 (2)

1981년 추석을 앞둔 어느날 미국의 로스안젤스시에 있는 그리스도교계통의 장로교회인 선한사마리아인교회당에 여느날처럼 수많이 모인 동포교인들앞에 십자가를 목에 걸고 교의를 입은 50대중반기의 담임목사 홍동근선생이 나섰다.

이날 례배끝에 선생은 고향에 다녀올 자신의 결심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고향에서 《체포령》을 받고 남조선으로 나온 선생의 지나온 경력으로서는 도저히 그런 용단을 내릴수 없다고 생각한 교인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교인들은 우려를 표시하였지만 이미 선생의 고향방문결심은 확고하였다.

고향을 떠난 때로부터 서른네해 언제 한번 잊은적 없는 고향이였다.

사실 고향방문신청을 하면서도 오래전에 《체포령》을 내렸던 자기를 공화국에서 이제 어떻게 대할가 우려도 하였지만 뜻밖에 승인이 순조롭게 되자 선생은 드디여 1981년 9월 어느날 고향길에 올랐다.

홍안의 청춘시절에 떠나갔다가 륙십을 바라보는 나이에 찾아오는 조국, 비행기시창으로 압록강을 내려다보는 선생의 눈가에는 눈물이 비같이 흘러내렸다.

비행기가 평양비행장에 내리자 마중나온 큰 형님과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일군들이 선생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홍동근목사

며칠후 홍동근선생은 수십년세월 꿈속에서조차 그리던 사랑하는 어머니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다.

대륙과 대양을 건너 미국으로 갔다가 수십년이 지나서야 다시 대양과 대륙을 넘어 고국을 찾아온 그에게 지금껏 누구도 줄수 없었던, 꿈속에서나 그려보던 귀중한것을 어머니조국이 안겨주었다.

선생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죄지은 자기를 이렇게 너그러이 품어줄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어머니는 미운 자식, 고운 자식 탓하지 않는다 했거늘 선생은 조국방문의 나날 그것을 페부로 절감하였다.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동포들에게 조국방문에 대한 소감을 들려주고 통일을 위해 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리고 공화국의 현실을 그대로 적은, 그의 인식전환이 집약화된 《미완의 귀향일기》(상, 하)라는 조국방문기를 써냈다.

1988년 9월 홍동근선생은 공화국창건 40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7년만에 또다시 조국을 방문하게 되였다.

이번에는 공화국에 고향을 둔 교포고향방문객이 아니라 해외동포인사의 자격으로 왔다.

선생은 봉수교회당과 장충성당을 돌아보면서 종교인사로서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는 조국의 현실을 페부로 느낄수 있었다.

공화국에서는 종교를 나쁘게 보거나 종교인들을 학대하지 않을뿐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그들에게 무상으로 교회당도 지어주고 생활조건도 보장해주고있으며 모든 종교단체들과 교인들의 활동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되고있다.

이러한 현실을 체험하는 선생의 가슴은 조국에 대한 감사로 쿵쿵 높뛰였으며 그러한 감동은 선생으로 하여금 어린시절 그토록 마음속으로 그려보던 민족의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님을 직접 뵈올수는 없을가 하는 생각에로 승화되였다.

하지만 한생을 반공의 영향하에서 공화국의 시책들에 대하여 그릇되게 여겨온 자기의 인생행로를 생각할수록 그것을 너무나 엄청난 생각으로 여기면서 공화국창건 40돐행사에 참가하여 만민이 우러르는 어버이수령님을 먼발치에서라도 뵈웠으니 그것만으로도 과분한 일이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때로부터 한해후 평양에서 성대히 열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홍동근선생은 그처럼 일일천추로 고대하던 가슴속소원을 성취하게 되였다.

주체78(1989)년 7월 8일 조국통일북아메리카협회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어버이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던것이다.

그들이 금수산의사당(당시)에 들어섰을 때 몸소 승강기가까이에까지 나오시여 홍동근선생을 비롯한 해외동포인사들을 친절히 맞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행을 접견실로 안내하려고 하는 일군에게 한집안식구가 만났는데 접견은 무슨 접견인가고 가볍게 나무람하시며 몸소 식탁으로 이끄시였다.

홍동근선생과 해외인사들이 너무도 감격스러워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의 인사를 올리려 하자 그이께서는 손을 저어 만류하시며 자신께서는 식탁에서 그런 말을 듣는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어서 많이 들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한생토록 지침으로 삼고 구현해야 할 생명처럼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너무나 겸허하신 그이의 가르치심에 홍동근선생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쳐오름을 금할수 없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시되고 민족존엄을 제일로 여기는 조국의 거대한 집을 떠받들고있는 만년초석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인식하게 되였다.

선생은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이는 만민이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유일무이의 희망의 별로, 따뜻한 봄날의 태양으로 빛을 뿌리시는 그이의 모습은 그후의 체험을 통해 선생의 가슴속에 더욱더 깊이깊이 자리잡게 되였다.

본사기자

지배와 굴종, 범죄의 력사는 감출수 없다

《반탁》, 《반공》의 구호밑에 감행된 파쑈적공세

1945년말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지배정책은 그것을 반대배격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대중적투쟁으로 밑뿌리채 뒤흔들리게 되였다.

이에 극도로 당황망조한 미국은 남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공세를 벌릴 흉계를 꾸미였다.

그 흉계가 바로 모스크바3국외상회의 결정을 교활하게 악용하는것이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 야망을 품고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안》을 오래전부터 꾸며왔으며 모스크바3국외상회의에서도 그에 대한 지지를 얻어보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나 모스크바3국외상회의에서는 미국의 안이 거부되고 조선에 통일적민주주의림시정부를 수립하는것을 골자로 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교활한 미제는 이러한 결정을 《신탁통치안》으로 매도하면서 《반탁》의 구호밑에 남조선 각계층을 민주력량의 영향에서 떼여내여 민주력량을 고립시키려고 하였다.

미국의 추악한 모략에 따라 1945년 12월 23일부터 《신탁통치안》이 채택될것이라는 보도가 도꾜와 워싱톤으로부터 류포되였고 12월 26일에는 리승만역도가 《신탁 및 공산주의를 절대 반대한다.》는 《반탁》, 《반공》의 나발을 불어댔으며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특히 미국은 12월 27일 모스크바3국외상회의 결정이 공포되자 한줌도 안되는 반동들을 긁어모아 《탁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라는것을 조직하고 29일에는 서울에서 《반탁시위》를 벌리게 하였으며 련이어 《조선인직원들의 총사표》를 조작하는 놀음을 벌렸다.

미국과 그 앞잡이들의 이러한 《반탁》모략을 반대하여 1946년 1월 3일 서울에서는 30만군중이 참가한 민족통일, 자주독립촉성시민대회가 열렸고 인천, 대구, 광주, 부산 등을 비롯한 남조선 각지에서 수십만군중이 참가한 강력한 집회와 시위투쟁들이 련이어 벌어졌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는 미국의 침략정책을 반대하는 애국력량과 미국의 침략정책에 추종하는 매국세력사이의 날카로운 투쟁이 벌어지게 되였다.

당시 미국은 《반탁》분자들의 란동을 《민족적감정의 발로》라는 터무니없는 궤변으로 두둔하는 한편 민주력량에 대해서는 《신탁통치지지자》로 비방중상하면서 그들에게 《공산주의》딱지를 붙여 탄압하려고 발악하였다.

또한 민주세력의 선두에 서있는 공산당과 로동운동에 대한 로골적인 탄압을 감행해나섰다.

1946년 5월 이른바 《정판사위조지폐사건》이라는 날조된 모략극을 꾸며내여 공산당본부를 습격하고 당기관지 《해방일보》를 강제페간시켰으며 7월 29일에는 허위날조된 《위조지폐사건》에 대한 《재판》을 공개할것을 요구하는 군중들에게 발포하여 학생 1명을 학살하고 50명을 검거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국과 그 주구들은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의 선두에 나선 로동자들에 대한 잔인한 백색테로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1946년 1월 7일 쇠뭉치와 몽둥이 등으로 무장한 반동테로단 수십명이 경성철도공장을 불의에 습격하고 로조간부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사건, 반동테로단원 50여명이 경성방직회사 양평정공장을 습격하여 20여명의 로동자들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 5.1절기념군중집회에 참가한것을 《죄》로 몰아 남조선 각지에서 수천명의 참가자들을 해고하고 공장을 페쇄해버린 사건 등은 바로 그 몇가지 실례들이다.

그후에도 미국의 배후조종에 따라 로동자들에 대한 테로가 상시적으로 감행되였다.

이처럼 미국은 남조선에서 《반탁》, 《반공》의 구호밑에 민주력량에 대한 공공연한 백색테로를 감행하였고 1946년 1월이후에는 모든 인민위원회들을 파괴하고 진보적인사들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가로막았다.

황 금 석

모스크바3국외상회의 결정실행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이 벌어졌다.

거창량민학살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지난 세기 50년대 미제가 일으킨 조선전쟁은 이 땅의 수많은 생들을 앗아간 력사에 상처로 남은 전쟁이였으며 인간과 야수와의 대결이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조선전쟁시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야수적인 범죄적만행들을 수없이 저질렀다.

미제살인귀들이 감행한 거창량민학살사건은 그 반인륜적범죄만행의 일단이다.

1951년 2월 미제침략자들은 피에 주린 남조선군을 거창군 신원면에 들여보내여 대현, 와룡, 성돈, 중유 등 6개 부락에서 700여호의 가옥을 몽땅 불태워버리고 109명을 성돈골짜기에 끌고가서 기관총사격으로 집단학살하였다. 이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살인마들은 나머지 600여명을 피난가자고 하면서 박산골짜기에 끌고가서는 한곳에 세워놓고 약 2개 중대병력으로 2시간이나 사격하여 집단학살하고 시체들에 휘발유를 끼얹어 불태워버리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거창량민학살사건에 대해 후날 남조선의 《동아일보》(1960년 5월 15일부)는 이렇게 전하였다.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부락민 600여명을 피난가자고 박산개천가에 끌고가서 한곳에 세워놓고 기관총과 소총 등으로 무려 2시간동안이나 쏘아댔다.

몇번이고 몇번이고 죽은 시체에다 자꾸만 총을 쏘아댔고 젖먹이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다 멎은 후에야 발사를 중지하고는 시체에다 기름을 뿌려 불태워버렸다.

이들은 민간인들을 죽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박산골짜기에 버려져있는 어린이들의 시체를 골라 머리를 따로 잘라 파묻어버렸는데 그후 부락민들이 해골을 파내여보니 뼈다귀만도 19가마니였다.》

이 사건은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 감행된 수많은 민간인학살만행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전쟁 3년간 미제야수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무고한 인민들을 쏘아죽이고 때려죽이고 불태워죽이는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가장 야만적이고 중세기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하였다.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있는것은 너무도 행복하다고 지껄이며 어머니의 품에서 아이들을 떼놓고 배고파 우는 어린이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워죽인 살인마도, 무고한 인민들의 머리우에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세균탄, 화학탄까지도 거리낌없이 퍼부은 살인귀들도 다름아닌 미제침략자들이였다.

공식통계에 의하더라도 미제는 조선전쟁시기 공화국북반부에서 123만여명, 남조선에서 124만여명을 학살하였다.

인류력사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히틀러파쑈도당이 감행한 야수적만행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잔인하고 악랄하고 무서운 만행으로 기록하고있다. 그러나 조선전쟁에서 감행된 미국의 야수적만행은 그 잔인성과 악랄성, 포악성에 있어서 히틀러파쑈도배를 훨씬 릉가하는것이였다.

전후에도 남조선에서는 미군에 의한 살인, 강간, 폭행 등 범죄만행들이 한시도 끊기지 않았다.

부평소년직승기궤짝사건, 동두천녀인삭발사건, 파주나무군사살사건, 윤금이살해사건, 미군장갑차녀중학생살인사건…

이처럼 치떨리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미제야수들은 불평등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치외법권적인 특권을 누리며 치떨리는 범죄를 계속 감행해왔다.

력사와 오늘의 현실은 미제침략자들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전 명 진

전쟁위기를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군사적대결책동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이 각종 전쟁연습들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련속 벌려놓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지난 22일 제8차 남조선미국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한데 이어 3월에는 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인 《자유의 방패》합동군사연습을 개시하고 이 기간 사단급의 《쌍룡》련합상륙훈련을 비롯한 야외실기동연습의 규모와 강도를 과거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수준으로 높일것이라고 떠들고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남조선미국대규모련합공중연습들인 《소링 이글》, 《비질런트 스톰》, 《쌍매》 등과 남조선미국특수작전훈련, 련합과학화전투훈련을 비롯한 각 군종, 병종련합훈련들을 벌리려 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은 이러한 전쟁연습을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고 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저들이 벌리는 전쟁연습의 침략적, 도발적성격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

묻건대 인민의 안녕과 국권수호, 국익사수를 위한 공화국의 자위적인 군사행동들이 어떻게 《도발》로 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국가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적대행위, 침략책동에 대응한 자위적조치들이 문제로 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는 《도발》과 《위협》을 일삼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다.

지난해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광란적으로 벌린 《을지 프리덤 실드》, 《비질런트 스톰》과 같은 전쟁연습들과 지금 벌리고있고 앞으로 강행하려는 전쟁연습들이 공화국을 겨냥한 전쟁책동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알고있는것이고 그들자신이 제입으로 실토하고있는것이다.

더욱 엄중한것은 미국과 남조선역적패당이 올해 계획한 전쟁연습들이 종전의 북침핵선제타격계획인 《작전계획 5015》를 더욱 공격적으로 갱신한 새로운 침략전쟁각본에 따라 강행되고있는것이다.

남조선호전광들자체가 현재 진행하고있고 앞으로 벌리게 되는 전쟁연습들이 《실전적작전계획》에 따라 《실전성을 제고》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을 내놓고 떠들어대고있다.

이처럼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엄중히 위협하는 군비증강과 대규모전쟁연습들을 그칠새없이 강행하는자들이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혀바닥에 올리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며 도적이 매를 드는것과 같은 파렴치의 극치이다.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의 전쟁대결책동은 조선반도정세국면을 전쟁접경에로 몰아넣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군사적망동이다.

이러한 북침전쟁연습들이 조선반도정세를 수습할수 없는 극단에로 끌어가리라는것은 더 론할 여지도 없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그 어떤 궤변으로도 조선반도정세악화의 주범, 핵전쟁위험을 몰아오는 장본인으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본사기자 김정혁

《조선반도긴장이 최고수준으로 고조되고있다》

미국과 야합한 윤석열역적패당의 광란적인 반공화국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불안과 위구의 목소리가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다.

《북에 대한 군사적위협이 전쟁위기까지 초래할수 있다.》, 《〈한〉미가 군사적인 힘으로 북을 누르려고 할수록 북은 더 크게 반발하고있다.》, 《3월 〈한〉미대규모련합군사훈련을 앞두고 조선반도긴장이 최고수준으로 고조되고있다.》

이것이 지금 남조선민심이 터뜨리는 전쟁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는 《서울시국회의》로부터 반윤석열투쟁을 시작할것이라고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한〉반도의 평화가 파괴되고있다. 미국 바이든정부와 윤석열〈정부〉는 력대 최대규모의 〈한〉미련합군사연습을 예고하고있다. 이미 〈한〉반도에는 전략자산이 수시로 드나들고있다. 이러한 전쟁연습은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뿐이다.》

《미국과 윤석열〈정부〉의 위험한 전쟁질주를 막아야 한다.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수 없다! 정전 70년,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나서자!》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의 무모한 북침전쟁책동은 남조선에서 《안보위기》, 《안보불안》을 더욱 고조시키고 대중적인 반미반전, 반윤석열투쟁을 불러올것이다.

본사기자

허재비들이 가소로운 객기

무진막강한 군사력의 과시로 세계를 경탄시킨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위력에 혼겁한 윤석열역적패당이 가소롭게 반공화국대결분위기를 고취하며 전쟁광기를 부리고있다.

윤석열역도는 그 무슨 《중앙통합방위회의》라는데서 《북의 전략적도발가능성》이니, 《비상대비체계》니 하며 입에 게거품을 물고 또다시 대결발작을 일으켰다. 《방위사업청》것들도 무장장비들의 《성능개량의 본격화》에 대해 떠들고 군부호전광들 역시 미국상전과의 련합포사격훈련과 편대비행훈련을 황급히 벌려놓으며 허세를 부리였다.

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대결망동이 아닐수 없다.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을 본 세계는 지금 공화국의 무진한 군사적위력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열병식》, 《사상최대의 대륙간탄도미싸일열병식》, 《현대화된 북의 면모를 내외에 과시한 행사》…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제국주의폭제를 제압할 최강의 전투력, 막강한 군력을 과시하며 지축을 울린 공화국의 열병대오들과 철갑대오, 《화성포》들의 도도한 흐름에 기절초풍한 미국도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거덜이 났다고 비명을 지르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은 미국에 붙어사는 저들의 가련한 처지에 절대적힘을 비축한 핵보유국과 어째보겠다고 설치고있으니 실로 가소로운 짓거리가 아닐수 없다.

반공화국대결에 미쳐도 더럽게 미쳐 오판을 고집하는 대결광들의 망동과 관련하여 남조선인터네트에는 역적패당을 지탄한 글들이 수없이 오르고있다.

《북의 막강한 군력덕분에 조선반도에는 핵전쟁이 없게 되였다.》

《까불지 말라 윤재앙.》

…

미국의 총알받이에 불과한것들이 제 죽을줄도 모르고 분별없이 날뛰는것은 그야말로 범 무서운줄 모르고 함부로 날뛰는 하루강아지의 꼴그대로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그 무슨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며 전쟁객기를 부리고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공화국의 압도적인 군사적강세에 당황망조한 허재비들의 승산없는 갈갬질, 급격히 확산되는 내부의 《안보불안》을 눅잦혀보려는 가소로운 추태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의 처지도 모르고 쓸데없는 객기를 부리는 윤석열역적패당의 무분별한 전쟁망동이야말로 조선반도정세격화의 근원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부질없는 대결모의판

《쥐들의 회의》라는 우화가 있다. 이 우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양이한테 혼쌀난 쥐들이 늙은 쥐의 집에 모여 어떻게 하면 고양이한테 잡혀먹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그중 한놈이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기만 하면 아무때건 쉽게 피신할수 있다고 하자 환성을 올리던 쥐무리들이 그러면 누가 방울을 달겠는가 하는 문제가 나서자 모두 목을 움츠렸다고 한다.

그래서 생겨난 성구가 《고양이목에 방울달기》이다.

모여앉기만 하면 그 누구의 《위협》이니, 《도발》이니 하고 합창을 해대는 미국과 일본, 남조선것들이 노는 꼴을 보면 신통히 우화에 나오는 쥐들의 꼬락서니그대로이다.

얼마전 미국에서 열린 남조선미국일본외교차관회의라는것만 보아도 그러하다.

거기서 론의된것은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위해 남조선미국일본사이에 련합방위태세와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것이다.

비약적으로 강화발전하는 공화국의 자위적억제력에 혼쭐이 난자들의 어리석고도 불순한 대결모의판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과 미국, 일본의 반공화국대결모의가 이번에 처음 있은것도 아니고 수십년째 계속되고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얻은것은 공화국의 초강대국으로의 비약적상승과 저들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의 파산뿐이다.

짐승도 한번 빠졌던 함정에는 다시 가지 않는다고 한다.

남조선역적패당과 미국, 일본것들은 공화국과의 대결에서 당한 수치와 패배에서 아직도 교훈을 찾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대결야망에 사로잡혀 《협력》이니, 《공조》니 하고 떠들고있다. 이것이야말로 제 처지도, 상대가 누구인지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얼간이들, 대결미치광이들의 가소로운 추태, 어리석은 망동이 아닐수 없다.

다시한번 명백히 하건대 공화국의 절대적힘, 군사적강세에 의해 유명무실해지고 넝마짝같이 된 반공화국 《3자공조체계》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뻔질나게 미국, 일본것들을 찾아다니며 반공화국대결모의를 벌리는것은 다 고삭은 울바자와 같은 반공화국《3자공조체계》로 료원의 불길과 다름없는 공화국의 군사적강세를 막아보려는것과 같은 해괴한 추태이다.

역적패당이 앞으로 어떤 화를 자초할지도 분간못하고 남조선을 대조선적대시정책실현의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미국과 일본것들과 입을 맞추며 대결광대극에 나서고있는것은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려고 꿍꿍이를 하였지만 제 죽을가봐 서로 눈치를 보는 우화의 쥐들보다도 못한 천치바보의 짓거리이다.

부언하건대 《쥐들의 회의》는 계속된다 하여도 답은 언제나 없을것이다.

그것은 윤석열역적패당은 물론 미국과 일본것들도 공화국의 무진하고 불가항력적인 강세를 숙명적으로 감수하지 않을수 없으며 그 언제든 절대로 참패를 만회할수 없기때문이다.

본사기자 박해방

오명들에 비낀 반역《정권》의 앞날

남조선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이 각계층의 조소와 경멸, 비난과 배격속에 파멸의 가쁜숨을 몰아쉬고있다.

역적패당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은 역적패당이 걸머지고있는 각종 오명들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 최악의 《경제무능정권》

이것은 친재벌적, 친미사대적인 《경제정책》과 《개혁정책》으로 경제와 민생을 망가뜨린 역적패당에 대한 민심과 여론의 조소이고 비난이다.

윤석열역도의 집권후 남조선경제는 파국의 수렁속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있다. 대기업들이 수십억US$의 경영손실을 내고 중소기업들의 50%이상이 빚더미우에 올라앉은것이 그 단적인 실례이다.

역도가 《법인세인하》, 《각종 규제완화》, 《로동개혁》을 떠들며 대기업들의 투자환경개선과 수출확대로 경제를 호전시키겠다고 하고있지만 대외경제환경이 더욱 렬악해지고 여야당사이의 정치적갈등과 로사갈등, 진보와 보수의 리해관계의 대립 등으로 그것은 전혀 실현불가능한것으로 되고있다.

역적패당에 의해 초래된 경제파국은 그대로 민생파탄으로 이어져 주민들은 살아있는것자체가 《기적》이라고 아우성치고있다.

◇ 력대 가장 미숙하고 취약한 《식물정권》

역적패당의 행정기구도 발육부전의 미숙아와 다를바 없다.

현재 윤석열역도는 집권 1년이 되여오도록 비서관, 행정관들에 대한 임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리고 정치보복에만 몰두하면서 검찰출신들만을 내세우다나니 통치체계도 불안정하고 내부의 갈등과 대립도 날로 격화되고있다.

실례로 역도가 강행하려고 하는 《개혁정책》들을 놓고서도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사이의 의견마찰이 이어지고있고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추진에서도 《안보실》과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의 민심과 여론은 통치기구와 기능자체가 미숙하고 불안한 《얼치기정권》이 바로 윤석열《정권》이라고 비난하고있다.

◇ 《안보에 가장 무능한 정권》

윤석열역도가 집권하기 바쁘게 《북주적론》, 《선제타격》을 떠들며 반공화국대결과 북침전쟁책동에 미쳐날뛴것으로 하여 남조선에서 《안보불안》이 전례없이 고조되였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도 윤석열역도는 미국, 일본것들과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면서 허세와 객기를 부리고있다.

역적패당의 대결광란은 가뜩이나 첨예한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있고 이것으로 하여 남조선주민들은 언제 어떻게 끔찍한 참변을 당할지 몰라 하루하루를 극도의 불안과 공포속에 살아가면서 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역적패당에 대해 《재앙정권》, 《최악의 안보무능정권》이라고 단죄하고있다.

이외에도 역적패당에게는 최악의 지지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력대 가장 무능한 《정권》, 윤석열의 녀편네인 김건희의 손가락에 따라 좌우되는 《꼭두각시정권》이라는 오명도 붙어다니고있다.

남조선에서 지난 《대통령》선거때 이런 말이 나돌았었다.

《윤석열이 당선되면 여직껏 본적이 없는 〈괴물정권〉을 만나게 될것이다.》

그 예평이 그대로 현실로 되여 남조선주민들은 지금 전대미문의 불행과 재난을 강요하는 희대의 《괴물정권》에 의해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다.

이것은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민심의 환멸과 혐오, 분노와 배격으로 이어지고있다.

《윤석열퇴진》, 《윤석열〈정부〉심판》

이것이 오늘 남조선의 민심이다.

김장호

《동물국회》, 《망나니국회》

남조선정치판은 약육강식의 동물세계와 다름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소환조사문제를 놓고 벌리는 여야당사이의 란투극을 보아도 그러하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얼마전 남조선검찰은 《대장동개발특혜사건》을 비롯한 부정부패사건들을 걸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령장을 청구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무력화하고 적수를 제거하기 위한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윤석열검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진실과 정의를 사수하겠다고 욱욱대고있다.

반면 《국민의힘》것들은 응당한것이다, 량심을 가진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야당을 살리는 마지막기회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고 떠들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있다.

여야간의 대립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것을 계기로 첨예한 격돌양상으로 번져지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강행통과시킨데 이어 윤석열역도의 녀편네 김건희의 주가조작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도 처리하겠다고 법석 떠들자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강행처리규탄대회라는것을 벌려놓고 《반헌법적폭거》라느니, 《〈대통령〉선거불복》이라느니 하면서 검찰을 부추겨 야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것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뿐이 아니다.

여야당것들은 각종 법안들을 놓고도 서로가 네가 옳니, 내가 옳니 하고 악청을 뽑아댄다.

이처럼 도탄에 빠진 민생은 안중에 없이 여야당이 당리당략과 추악한 정치적야욕실현을 위해 서로 물고뜯으며 피터지는 싸움을 벌리는 곳이 바로 남조선《국회》이고 남조선정치권의 진풍경이다.

그러니 남조선 각계층이 《국회》를 가리켜 《동물국회》, 《란장판국회》라고 침을 뱉는것이다.

서민들이야 죽든말든 오로지 저들의 추악한 정치적리속을 추구하는 이런 정치시정배들에게 무엇을 기대할수 있겠는가.

남조선의 여야정치세력들사이의 개싸움은 검찰독재로 정치적반대세력을 말살하고 통치위기를 수습해보려고 획책하고있는 윤석열역도의 망동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더 격화되고있다.

언제 끝날지 알수 없는 싸움,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되는 정쟁과 관련하여 남조선민심과 여론은 《그놈이 그놈이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이다.》, 《이런 정치망나니들을 〈국회〉의원으로 모시는 불쌍한 〈국민〉은 하늘아래 우리밖에 없을것이다.》라고 개탄하고있다.

본사기자 안권일

역적패당에 대한 원한과 분노의 분출

《개혁이 아니라 개악》

남조선에서 윤석열역도의 《개혁정책》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윤석열역도는 올해를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로동, 교육, 년금개혁》과 함께 《정부개혁》까지 내들고 그 추진을 위한 대책마련에 급급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이 극히 반인민적인 내용으로 일관된것으로 하여 남조선 각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있다.

《민주로총》을 비롯한 남조선로동계는 역도의 《주 52시간근로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폐기, 《직무성과급제》도입은 고역에 의한 사망을 초래하는 《로동개악》이고 로동조합의 단결을 약화시키기 위한 술책, 《반로조색채가 덕지덕지 묻어나는 개혁》, 로조를 목조르기하는 무단통치의 부활이라고 하면서 반《정부》투쟁에 나서고있다. 야당들도 각종 법안심사를 미루어놓는가 하면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 등 《로동존중 3대과제》로 맞대응할 의지를 표명하고있다.

윤석열역도의 《교육개혁》에 대한 각계의 비난도 고조되고있다.

남조선의 교육계와 언론, 전문가들은 역도의 교육관은 정쟁만을 심화시켜 서로 반목질시하고 싸움질만 시키는 개혁, 교육분야의 부익부, 빈익빈을 극대화하고 《등록금대란》까지 일으켜 못사는 사람들은 한평생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수 없게 만드는 반인민적인 개혁이라고 비평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남조선언론들과 각계층은 윤석열역도의 《년금개혁》과 관련해서도 보험료지불과 《소득대체률》론의문제가 더 내고 더 받는것인지 아니면 덜 받는다는것인지 명백치 않다고 하면서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는 정치세력간의 론쟁과 계층별리해가 엇갈리는것으로 하여 언제 실현되겠는가 하는것도 미지수이라고 조소하고있다.

역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부개혁》 역시 야당들의 제동에 걸려 추진되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내부에서는 《개혁정책추진이 혼란스러운 상황》, 《윤석열표개혁은 어디로 가고있나.》라는 비난의 목소리만 높아지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윤석열역도가 자기의 정치적기반과 통치력을 마련하고 보수패당의 장기집권토대를 닦아보려고 여러가지 《개혁》안을 들고나오고있으나 시작부터 남조선 각계의 강한 반발과 제동으로 실현가능성이 날이 갈수록 희미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박근혜참수인형을 보는것같다》

남조선의 시민단체인 《초불승리전환행동》이 지난 11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일대에서 2 000여명규모로 《윤석열퇴진! 김건희특검! 26차 전국집중초불대행진》을 개최하였는데 집회장에 《윤석열에게 활쏘기》라는 간판을 단 활쏘기놀이터가 등장하여 참가자들과 사회 각계의 커다란 인기와 호응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활쏘기놀이터에는 윤석열역도와 녀편네 김건희, 《법무부》 장관의 얼굴을 따붙인 인형들과 함께 역도와 녀편네, 역도부부와 깊은 인연을 맺고있는 점쟁이 《천공스승》, 여당인 《국민의힘》을 과녁으로 하는 목표판이 설치되여있었으며 《난방비폭탄》, 《전쟁위기》, 《깡패정치》, 《친일매국》이라는 비난글들을 새겨넣은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초불승리전환행동》은 12일 인터네트에 남자어린이가 활쏘기놀이를 한 후 두팔을 높이 올려 환호하는 모습과 한 남성이 자기 신발을 벗어 윤석열역도의 몰골을 형상한 인형을 내리치는 모습을 게시하고 역적패당을 한껏 조롱하였다.

특히 윤석열《정권》의 《도를 넘는 패악질》에 초불민심의 분노가 걷잡을수 없이 커지고있다, 《깡패정치》, 《민생파괴》를 초래한 윤석열의 말로가 눈앞에 선명하게 다가왔다고 주장하였다.

윤석열역적패당을 겨냥한 활쏘기놀이장면들을 본 각계층 주민들은 아주 생동하고 해학적이며 흥미있는 구경거리이다, 검찰총장출신이 《대통령》이 되더니 사회전반에 검찰권을 마구 람용하고있다, 21세기에 류례없는 검찰독재가 득세하니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있다고 하면서 윤석열역적패당을 단죄규탄하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반《정부》집회에 현 집권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활쏘기놀이터가 설치되였다는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분노가 최고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준다, 박근혜탄핵집회때 등장하였던 《박근혜참수인형》을 보는것만 같다고 전하였다.

본사기자

종교인들의 반《정부》투쟁기운 고조

남조선에서 사대매국과 반공화국대결, 반인민적악정에 매달리는 윤석열역적패당을 단죄배격하는 종교인들의 반《정부》투쟁기운이 날로 더욱 고조되고있다.

지난 1월 10일 남조선《그리스도교녀성총련합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진보련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정전 70년 〈한〉반도평화행동제안 종교,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는 대북적대행위를 멈추라!》, 《〈한〉미련합군사연습중단으로 평화의 길을 열자!》 등의 구호들을 웨치면서 남조선미국련합훈련중단을 강력히 요구해나섰다. 2월중순에도 이들은 각계층 시민단체들과 련대하여 《정전 70년 〈한〉반도평화행동》을 내오고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집중서명운동》을 전지역적으로 벌려나가겠다는 립장을 밝히였다.

그리스도교, 불교, 카톨릭교, 원불교 등 4대종교단체들도 윤석열역적패당의 반인민적악정에 항거하여 성토모임을 가지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만을 일삼는 위정자들을 준렬히 단죄하였다.

이러한 속에 불교계에서는 윤석열역도가 녀편네와 함께 《신년대법회》에 참가하여 불공을 드리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불교계의 환심을 사보려 하였지만 쓴 오이보듯 랭대하여 역적패당을 당황케 하였다.

카톨릭교와 그리스도교의 교직자들 역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역도의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인한 전쟁위기를 막고 검찰독재강화를 저지시키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시급히 개최할것을 제안한데 이어 《윤석열이 반북대결망언들로 전쟁의 참화를 불러오면서 각계의 저주를 받고있다.》, 《부패한 검찰의 전횡을 사촉하는 윤석열에 의해 민주주의가 퇴행하고있다.》,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를 굴욕적으로 처리하려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일본의 하수인이다.》, 《썩어빠진 기득권정치, 불공평한 기득권세상 싹 바꿔버리자!》고 주장하는 성토문을 발표하면서 윤석열역적패당의 친미친일사대매국행위와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반대배격해나서고있다.

남조선종교인들의 이러한 반윤석열, 반《정부》투쟁은 반인민적망동만을 일삼는 윤석열역적패당을 단호히 징벌하려는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층의 결연한 의지의 분출이다.

시대의 흐름과 인민의 지향에 역행하여 죄악에 죄악을 덧쌓는 윤석열역적패당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

본사기자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발전하는 료리기술

인민들을 새 문화, 새 문명의 향유자로 내세워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공화국에서는 태양절료리축전, 전국단고기료리경연, 밀가루음식전시회 등이 이채를 띠고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얼마전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된 제11차 광명성절료리기술경연도 보다 문명하고 풍성해질 인민들의 식생활문화를 선도해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성, 중앙기관봉사부문, 인민봉사지도국부문, 평양시안의 급양 및 대외봉사단위들에서 선발된 료리사, 접대원들과 일군들이 참가한 이번 경연에서는 여러가지 료리와 음료를 직접 만들어내는 기술경연, 자기 단위의 특색을 보여주는 료리전시회와 함께 우수한 료리사들의 시범출연도 있었다.

기술경연에서는 매 단체들에서 5가지의 료리를 민족적특색이 살아나면서도 현대적미감이 나고 품위있게 만들어 출품하였다.

특히 옥류관의 통자라찜, 청류관의 뱀장어구이, 양각도국제호텔의 칠면조고기구이, 경흥식당의 해산물회, 평양고려호텔의 소등심편구이에는 우리 민족료리의 고유하고 독특한 개성이 잘 반영되여있어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모든 단위가 다 참가한 음료경연에서는 평양시안의 급양봉사단위에서 만든 오과차와 도마도초음료가 색갈이 고우면서도 그 맛이 독특한것으로 하여 깊은 인상을 주었다.

기발하고 독특한 료리가공방법, 평시에 련마한 능란한 솜씨를 보여준 료리명수들의 시범출연도 이채를 띠였다.

특히 급양부문 일군들의 출연은 경연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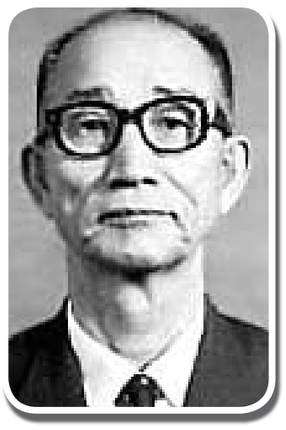
대외봉사단위, 평양시안의 급양봉사단위 일군들은 두부볶음을 종전과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이목을 끌었으며 옥류관에서도 재치있게 조리도구들을 써가며 섭조개구이를 완성하여 절찬을 받았다.

조선료리협회 중앙위원회 일군은 《이번 료리기술경연을 통하여 우리의 음식문화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게 발전하고있다는것을 다시금 느낄수 있었다. 인민들의 문명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있는 오늘날 나라의 료리기술을 보다 발전시켜나가려는 일군들과 료리사들의 열의는 참으로 대단하다. 날로 개화발전하는 우리 음식문화의 어제와 오늘이 있어 더욱 향상될 래일이 있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김 혜 성

공화국의 품에서 삶을 빛내인 문학예술인들

작곡가 리면상



함경남도 함주군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여난 리면상은 천부적인 음악적재능을 타고난 신동이였다.

광주학생사건에 련루되여 학교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는 타향에 건너가 음악공부를 하면서 식민지청년의 피눈물나는 고학생활도 맛보았다.

우리 민족에게 재생의 봄, 희망의 봄을 불러온 조국해방은 그에게 있어서 그대로 노래였고 선률이였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크나큰 신임에 의하여 리면상은 당시 함경남도 음악건설동맹 위원장으로, 북조선음악건설동맹 위원장(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업하였으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라는 중임도 지니였다.

그는 창조의 숨결로 들끓는 공장마다에서, 땅냄새 구수한 전야에 울려퍼지는 농민들의 구성진 민요가락에서 인민들이 대대로 간직한 정서를 폐부로 느꼈다.

가요 《소년단행진곡》, 《빛나는 조국》 등이 이 벅찬 시기에 태여났고 홍남의 로동계급의 힘찬 마치질소리에서 노래 《승리의 5월》이 고고성을 터뜨렸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는 원쑤에게는 총탄이 되고 싸우는 군대와 인민에게는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 훌륭한 전시가요들을 수많이 내놓았다.

그가 작곡한 《조국보위의 노래》는 삽시에 온 나라에 울려퍼졌으며 쓰러지면서도 피흘리면서도 높은 령, 험한 길을 단숨에 넘는 인민군용사들의 투쟁정신은 그대로 선률이 되여 후세에 길이 전해질 《문경고개》라는 명곡을 낳았다.

이 시기 그는 인민들의 풍부한 감정과 인간성, 고상한 정신과 신념, 소박한 생활을 담은 《압록강 2천리》, 《내 고향의 정든 집》, 《봄노래》와 같은 누구나 사랑하는 서정적인 노래들도 세상에 내놓았다.

전후 그는 《영광의 땅 보천보》, 《어머니당이여》를 창작하였다. 특히 우아하면서도 서정적인 정서로 일관된 가요 《눈이 내린다》는 그가 1960년대에 작곡한 시대적명곡이다. 관록있는 작곡가인 그는 김일성상계관인, 인민예술가였다.

본사기자

조선미술박물관을 찾아서

고려시기의 미술작품들

우리 민족의 첫 통일국가로서 그 이름을 만방에 빛내인 고려시기에 미술의 여러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특히 자기공예는 세인을 경탄케 하였다.

《지금까지 전해져오는 고려시기 미술유산들을 통하여 능히 그 발전수준을 엿볼수 있습니다.》

김금희강사는 고려의 건국시조인 왕건왕릉에서 발굴된 벽화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왕건왕릉에서는 동, 서, 북쪽의 세 벽에 참대와 소나무 등을 그린 벽화들이 나왔다고 한다. 그중에서 조선미술박물관에 전시된것이 벽화 《매화와 대, 소나무》였다.

벽화는 구도, 선, 색채가 힘있고 섬세하면서도 생동한 조선화의 형상필체를 그대로 보여주고있었다. 매화와 대, 소나무는 우리 선조들이 사랑하고 즐겨 화폭에 옮겼는데 벽화를 보니 조선민족의 강인하고 굳센 성품이 그대로 살아숨쉬는듯하였다.

경효왕무덤에서 나왔다는 벽화 《12지신상》도 보기 드문 명화였다. 특징적인것은 12지신상을 산인간처럼 형상한것이였다.

관복차림의 사람이 두손을 가슴에 모아 홀을 쥐고 선 모습은 마치도 왕의 조례에 참가한 신하의 모습을 방불케 했다. 12지신이라는 표식은 관모우에 그려진 갖가지 짐승의 머리를 통해서 알수 있었다.

김금희강사는 이어 고려자기에 대하여 설명해주었다.

《당시 고려의 자기공예는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비취색을 띠는 고려청자기는 종류가 다양하고 색과 무늬, 형태가 독특하며 예술성이 높은것으로 하여 세계도자공예력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전시된 자기들속에 있는 학구름무늬박이푸른자기대접은 색갈자체가 부드러우면서도 아름다왔다.

이런 고려청자기의 색은 자연속에서 쉽게 찾게 되는 색채와 다른 특이한 비취색을 띤다.

뿐만아니라 자기표면에 무늬를 새기고 여러가지 색흙으로 메꾼 다음 유약을 발라서 구워내는 상감장식기법은 무늬와 형태, 색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고급한 수법이라고 한다.

전시된 자기들 하나하나에서 우리 선조들의 뛰여난 재능과 슬기가 그 신비로운 빛과 함께 발산하는듯하였다.

본사기자 리 철 민

왕건왕릉벽화의 일부

새롭고 특색있는 도안창작에 힘을 넣는다

공화국의 중앙산업미술국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산업미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시기 산업미술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분석총화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창작활동에 착수하였다.

산업미술도안 하나에도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이 비끼고 나라의 발전면모와 경제적잠재력, 문명수준이 담긴다는것을 자각한 이곳 창작가들은 심의기준을 높은 수준으로 올린데 맞게 사람들의 아름다운 지향과 현대적인 미감에 맞으면서도 실용적측면과 미적측면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새롭고 특색있는 도안들을 창작하기 위해 서로 도우며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고있다.

봉사자들이 사용하게 될 봉사복을 창작할 과업을 받은 한 녀성창작가는 직업적특성이 살아나면서도 편리하고 보기 좋은 봉사복을 독특하고 세련된 창작기법으로 새롭게 만들겠다고 결의해나섰다.

이들의 불타는 열의와 창조적재능으로 휘황한 공화국의 래일을 보여주는 새롭고 특색있는 도안들이 곧 출품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 조선의 국가상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

국어는 국가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통일적인 교제수단으로 제정하여 쓰는 언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는 조선어이다.

조선어는 그 우월성과 유구성, 순결성에 있어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우수한 언어이다.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하나의 피줄을 잇고 하나의 언어를 쓰면서 살아온 단일민족이며 우리 나라의 력사와 함께 발전풍부화되여온 조선어처럼 민족적특성이 강하고 우수한 민족어는 찾아보기 힘들다.

조선어의 기준은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전체 인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창조되고 가꾸어진 평양문화어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공화국의 수도인 평양의 언어를 기준으로 하여 민족어전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시였으며 어휘정리사업을 나라의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하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1940년대말에 우리 글자에 의한 단일한 서사체계가 확립되였다.

평양문화어는 절세위인들의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풍을 본보기로 하여 민족어의 고유한 특성과 우수성이 집대성되고 현대적으로 세련된 조선어의 전형이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속에 평양문화어의 우수성은 더 높이 발양되고있다.

본사기자

국가비물질문화유산

백두산 옛 전설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과 관련한 옛 전설들에는 《단군이야기》, 《천지속의 장수검》, 《백두산의 돌사자》, 《천지의 우뢰소리》, 《백두산의 사슴이끼》 등이 있다.

이러한 옛 전설들은 백두산의 장엄하고 웅장하며 천변만화하는 신비로운 자태와 경치를 찬양하고 백두산을 민족의 명맥을 이어주는 조종의 산으로 숭상해온 우리 겨레의 지향과 념원, 그것을 굳건히 지키고 빛내여가려는 굳센 의지와 애국의 열망으로 일관되여있다.

우리 선조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백두산을 내 나라 금수강산의 뿌리가 내리고 단군민족의 력사와 넋이 비낀 성스러운 곳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백두산에서 받아안게 되는 숭엄한 사상감정과 생활정서를 반영한 전설들을 수많이 창조하여왔다.

백두산에 대한 깊은 애착과 사랑이 짙게 반영되여있는 옛 전설들에는 백두산에서 한지맥으로 뻗어내린 삼천리강토에서 하나의 혈통을 이어받으며 백두의 신비하고 순결한 자태와 장엄한 위용그대로 민족의 넋을 키우고 찬란한 문화와 유구한 력사를 빛내여온 우리 선조들의 뛰여난 슬기, 드높은 민족적존엄과 자부심이 깊이 있게 구현되여있다.

백두산의 옛 전설들은 백두산을 조선의 넋과 기상의 상징, 민족의 성산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더없는 자랑으로 여겨온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이 반영되여있는것으로 하여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다.

본사기자

야담

묘방책을 가진 의원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고운 류씨가 있어 길손들은 의례히 그 집에서 묵군 하였다.

류씨는 길손들에게 집에 있는대로 대접하였고 혹시 길손들이 밥값이라도 내려고 하면 굳이 거절하였다.

하지만 한가지 부탁만은 하였다.

《정 밥값을 내려거든 이 책에다 무슨 병을 앓을 때 무슨 약을 어떻게 쓰면 어떻게 낫더라고 한가지만 써주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리하여 손님마다 한가지씩 묘방을 써놓고 가는것이 례의처럼 되였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묘방은 백가지, 천가지로 늘어나 두툼한 책이 되였다.

류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들이 대를 잇게 되였다.

동네방네 앓는 사람이 생기면 누구나 찾아와 묻군 하였는데 그러면 아들은 책을 번져가며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그때부터 아들은 《류씨의원》이 되였다.

그리하여 《류씨의원》은 서해도(오늘의 황해도지방)에 그 이름이 자자하게 되였다.

본사기자

사 화

로인들을 존경하는 민속풍습 《경로회》(3)

글 전철호, 그림 박봉혁

무달은 이날도 아침일찍 밭으로 나와 걸싸게 씨를 뿌려나갔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제밤 달무리가 진걸 보아 이제 사흘안으로 비가 올거라고 하였다.

농사군이라면 누구보다 천기를 내다볼줄 알아야 한다. 한해 농사의 흥풍은 씨붙임에도 달려있으니 비오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뒤따라 나온 아버지도 조를 뿌려나갔다.

얼마쯤 지났는데 밭머리쪽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다.

무달이 눈길을 드니 오솔길이 나있는 밭머리의 잔디우에서 지나가던 로파와 젊은 녀인이 보꾸레미를 펼쳐놓고 요기를 하고있었다.

아마 식전바람으로 길을 나선 모양이였다.

《어머니, 좀더 잡수시와요.》

《아가, 난 많이 먹었다.》

《어머니가 더 들지 않으면 저도 안먹겠어요.》

《원 참, 늙은이에겐 밥이 지팡막대라고 성화를 먹이니 할수 없지. 내가 한술 먹으면 아가도 한술 들어야 한다.》

오손도손 밥술을 권하는 그들을 보느라니 무달은 눈굽이 축축해졌다.

젊은이는 늙은이를 공대하고 늙은이는 젊은이를 아껴주는 바로 저들의 모습이자 선량한 박달겨레의 아름다운 참모습이 아니겠는가.

모두가 저들처럼 한다면…

한동안 생각을 굴리던 무달은 불쑥 무릎을 쳤다. 길가던 저 젊은 녀인처럼 나이많은 어른들에게 음식대접을 잘하면 어떨가. 온 동네 젊은이들이 전부 떨쳐나 성의껏 음식상을 차리고 마을의 늙은이들을 청해오는 모임을 연다면 로인들을 우대하는 좋은 바람을 일으킬수 있을것이다.

무달은 지금껏 고심해온 생각을 튕겨준 젊은 녀인이 고마와 절이라도 하고싶었다.

길손들은 주섬주섬 행장을 꿍쳐이고 또다시 길을 떠났다.

무달은 그들이 언덕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왜 진작 그런 생각을 해내지 못했을가. 늙은이를 공대하는 일만은 억지로 절받기처럼 해서는 안된다.

사람의 바탕은 본래 착한것이니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이도 다 좋은 말로 타이르고 좋은 일로 감화시킨다면 선량한 본래대로 되돌아올수 있을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혼쭐을 내주자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저으며 무슨 마련이 있어야겠다고 했구나.

무달은 아버지와 함께 씨를 뿌려나가며 속생각을 꺼내놓았다.

그의 말을 다 듣고난 아버지는 못내 만족해하였다.

《옳은 생각이다. 바로 그렇게 하면 될게다. 사실말이지 늙은이들이 젊은이들에게 짐만 되는건 아니다. 그 반대로 도움을 많이 주거던. 우리 나라의 애국명장 명림답부어른이 년로한 몸으로 갑옷을 입고 출전하여 이 땅에 기여든 오랑캐놈들을 몰살케 한것만 봐도 잘 알수 있어. 늙은이를 공대하는 집안이나 나라는 꼭 흥하는 법이란다.》

《아버님말씀을 명심하겠소이다.》

며칠후, 동네앞의 맑은 내물이 흘러내리는 개울가로 온 마을이 모여들었다.

집집마다 봄파종을 제때에 마친 기쁨을 안고 색다른 음식들을 잘 차려가지고 나왔으니 더없이 들썩거렸다.

마을이 생겨 보기 드문 광경이였다.

하긴 그럴수밖에 없는것은 무달이 큰마음을 먹고 동네 젊은이들을 휘동하여 마련한 자리였다.

무달은 집에서 기르던 돼지까지 잡아 음식을 차리였다.

그는 제일 좋은 자리에 갖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동네로인들을 불러 따로 앉히였다.

각별한 환대속에 푸짐한 음식상을 마주한 로인들은 못내 만족해하였다.

지금껏 명절놀이나 생일놀이는 해보았어도 온 동네가 음식을 잘 차려가지고 쾌청한 날에 밖에 나와 한식솔처럼 오붓하게 둘러앉아보기는 처음이였다.

더우기 동네젊은이들이 친절하게 음식을 권하니 한자식같았다.

그들은 음식을 맛있게 들면서 이렇게 늙은이들을 공경하여 진정을 바치는 젊은이들을 효자라 치하하였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었다.

늙은이들의 조언은 어느것 하나 리치에 빗나가는것이 없었다.

로인들의 칭찬에 부모공대를 잘하던 젊은이들은 앞으로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슴을 들먹였고 《우물집》젊은이 같은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온 동네가 한자리에 모여앉아 음식을 나눈다고 하였지만 저희 젊은 량주몫만 차려내온 《우물집》며느리는 바늘방석에 앉은것같았다.

무달이는 동네로인들을 다 잘 먹이겠다고 돼지까지 잡았는데 자기는 시부모의 몫마저 생각하지 않았으니 이게 과연 사람의 도리란 말인가. 사람이 이렇게 살아 무슨 락이람, 늦게나마 부모들에게, 늙은이들에게 효도를 바치는 무달이네 량주의 소행을 본받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우물집》며느리는 그날 저녁 시부모들앞에서 용서를 빌었다. 다음날부터 그 녀인은 새로운 마음을 안고 늙은이 공대에 정성을 다하였다.

이렇게 되여 마을에는 로인들을 우대하는 좋은 바람이 불게 되였다.

무달은 온 마을이 모여앉아 로인들을 공경하는 모임이 마을의 화목에 크게 기여한다는것을 뜨겁게 절감하였다.

하여 그는 자주 로인들을 우대하는 모임을 열었다.

명절날이나 쾌청한 날에 동네앞의 풍치좋은 개울가에 음식을 차려놓고 로인들을 불러내여 공대하는 모임은 그저 음식대접으로 그치지 않았다.

젊은이들이 경쟁적으로 차려내온 음식상을 마주한 자리에서 로인들은 누구라 없이 마을의 화목을 도모하고 동네를 꾸리는 좋은 의견들을 내놓군 하였다.

그러니 이런 모임이 있어 마을에는 흥하는 일들이 련이어 생겨났다.

개울에 다리가 새로 놓아지고 길이 넓어졌다.

여기저기서 곡식종자며 가축종자, 과일나무들을 구해들였고 온 마을이 달라붙어 관혼상제를 치르었다.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은 마을을 부유하게 하고 사람들의 화목을 이루게 하였다.

어찌 그뿐이랴. 늙은이들이 더욱 장수하여 젊은이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많이 할수 있게 되였으니 마을은 날로 흥해갔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로인들을 가리켜 동네의 자랑이라면서 끝없이 공경해마지 않았다. …

이 좋은 풍습은 곧 고구려 전국은 물론 동족의 나라들인 백제와 신라에로 널리 퍼져나갔다.

세나라의 마을들마다에서 온 동네젊은이들이 떨쳐나 춘하추동의 좋은 날이나 뜻깊은 날들에 맛좋은 음식을 성의껏 차려놓고 로인들에게 대접하고 그들의 훈시를 달게 받아들여 향토를 더 잘 가꾸어나가는 아름다운 풍습은 그후 고려를 이어 계속 전해졌다.

그 나날 이 모임은 로인들을 공경하고 위로하는 회합이라는 뜻에서 《경로회》라 불리우게 되였다.

(끝)

ㄱ-1580ㄷ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